



지리 자동차 평칭평 부총재(왼쪽)와 LG화학 김중현 사장(오른쪽)이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LG화학

LG화학, 中 EV공략 지리사와 합작법인

로컬 브랜드 1위 자동차업체
1034억씩 출자, 올해 말 착공
완공 땀 배터리 10GWh 생산

LG화학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공략을 위해 중국 '로컬 브랜드 1위' 지리 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을 설립한다.

LG화학은 전남 중국 저장성 Ningbo시에 위치한 지리 자동차 연구원에서 지리 자동차 평칭평 부총재, LG화학 전 지사업본부장 김중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작법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작법인은 LG화학과 지리 자동차가 50대 50 지분으로 각 1034억원을 출자한다. 공장 부지와 법인 명칭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2021년말까지 전기차배터리 10GWh의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합작법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2022년부터 지리 자동차와 자회사의 중국 출시 전기차에 공급된다.

양사가 합작법을 설립하게 된 것은 중국 시장 공략이 필요한 LG화학과 높은 품질의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중요한 지리 자동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중국 시장점유율 1위인 지리 자동차는 2020년부터 판매량의 90%를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간 LG화학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현지 배터리 업체 및 완성차 업체와의 협업을 검토해 왔다. 합작법인 설립으로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공략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기대했다. 특히 로컬 1위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으로 2021년 이후 보조금 정책이 종료되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세계 자동차 업체들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업체와의 협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LG화학은 독자 기술력 유지가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투자 안정성도 높일 수 있는 세계 유수 완성차 업체들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중현 전지사업본부장(사장)은 "전 세계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합작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로컬 1위 완성차 업체인 지리 자동차를 파트너로 확보하면서 중국 시장 공략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며 "합작법을 통해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가고,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전기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i964@

황창규 KT회장, FAO 컨퍼런스 기조연설

“ICT기술로 가축전염병 확산 막는다”

FAO와 농업혁신 공동노력 협약
생산성 높이고 감염병 보호 등
5G기술로 혁명적 변화 이룰것

“5G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면 혁명적 변화가 이뤄질 것이다.”

황창규 KT 회장이 유엔식량농업기구 공식행사에 참석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제안했다. KT는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ICT를 기반으로 농업혁신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황창규 회장은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주최로 개막한 '디지털 농업혁신'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기조연설은 FAO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1945년 설립된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194개 회원국을 보유한 유엔 산하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 중 하나다. 이번 컨퍼런스는 호세 그라치아노 다 실바 FAO 사무총장을 비롯해 유엔, 정부, 학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1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12일 오전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황창규 회장은 세계적으로 인간과 동물이 감염병을 고통받고 있는데 감염병으로 인해 연간 지출되는 비용은 600억 달러(약 71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2015년 발생한 메르스로 인해 1만6600명이 격리되고, 19억 달러(약 2조2500억원) 규모의 사회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예를 들었다.

황 회장은 “5G 기술을 농업에 적용한다면 혁명적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디지털 농업혁신'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KT

고 강조했다. ICT 혁신기술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축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창규 회장은 ICT를 활용해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의 40%를 차지하는 축산물을 감염병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T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2016년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5만여축산차량의 GPS에 기반한 농장방문 정보를 분석해 전파 위험을 평가하는 '동물감염병 방역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아시아 국가로 확산된 것은 동물감염병의 국가간 전파 차단 중요성을 일깨운 사례라고 소개했다. 특히 사람을 매개로 동물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T가 여행자에 의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제안한 GEPP는 동물감염병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황창규 회장은 GEPP와 혁신적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플랫폼(LEPP)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각 나라에서 LEPP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각국 정부가 축산농가 정보를 LEPP에 공유해줄 것을 제안했다.

KT는 12일 오전 황 회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FAO와 MOU를 체결했다. KT와 FAO는 지난 5월 14일(한국시간) 서울에서 'ICT 기반 세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의향서(LOI)'를 맺은 바 있다.

KT와 FAO는 이번에 체결한 MOU에 따라 ▲스마트팜 등 ICT 농업혁신 기술 교류 ▲글로벌 농업청년 교육 프로그램인 '해커톤'을 활용한 농업 일자리 창출 ▲글로벌 민관협력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을 협력하게 됐다.

호세 그라치아노 다 실바 FAO 사무총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KT와 FAO가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두산중 '미래형화력플랜트 기술' 美서 인정

美 에너지부 공모, 과제 2건 당선

두산중공업은 '석탄 기반의 미래형 화력플랜트'를 주제로 미국 에너지부가 실시한 공모에 두 건의 기술과제가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는 발전 환경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신재생 에너지의 보완 수단인 차세대 발전설비로 탈바꿈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시행했다. 미국에는 현재 총 240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두산중공업은 미국 내 협력사인 바르엔지니어링, 노스다코다 대학 연구소 등과 함께 공모에 참여해 '석탄, 가스, ESS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 '가스화 하이브리드 청정발전시스템' 등 두 건의 기술과제를 통과시켰다.

첫 번째 과제인 '석탄, 가스, ESS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에서는 1000MW

초초임계압 발전기술을 250MW급으로 축소해 급속 기동 기술을 적용하고 여기에 가스터빈과 ESS를 접목해 신재생에너지 환경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과제인 '가스화 하이브리드 청정발전시스템'은태안IGCC(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소)를 통해 확보한 기술로 석탄을 가스화하고 수소와 이산화탄소로 분리한 뒤, 수소는 연료전지 발전에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는 포집하는 시스템으로 구성했다.

이번 기술과제는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오래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새로운 개조 모델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발전 효율 40% 이상, 급속 기동, 2030년 이전 실증 상용화 가능한 기술 차별성 등 미국 에너지부가 공모 과정에서 제시한 평가 요건도 모두 충족시켰다.

/정연우 기자

폴크스바겐, 문화·감성 마케팅으로 고객소통 확대

페터팍스트 전시 공식 후원부터 아테온과 함께하는 로드 투어까지 고객들에 특별한 체험 기회 제공

폴크스바겐코리아가 올해도 다채로운 감성·문화 마케팅을 선보이며 고객과의 소통 확대에 나선다.

13일 폴크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오는 10월 27일까지 중구 회현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피크닉'에서 진행되는 페터 팍스트의 전시, 'Peter Pabst: White Red Pink Green - 피나 바우쉬 작품을 위한 공간들'을 공식 후원하며, 전시로부터 영감을 받은 '폭스바겐 아테온 가든'을 연계해 운영한다.

폴크스바겐코리아가 공식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지난 30여년간 부퍼탈 댄스시어터의 무대를 책임져온 무대미술가 페터 팍스트의 단독 전시로, 전설적인 안무가 피나 바우쉬의 작품을 위해 그가 창조해낸 초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무대들 중에서도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몇 가지를 피크닉 공간에 맞게 재구성하여 소개한다. 또한 관람객들이 페터 팍스트의 작품을 통해 얻은 감흥과 영감을 천천히 음미할 수 있도록, 이번 전



폴크스바겐코리아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복합문화공간 피크닉(piknic)과 콜라베이션 실시.

시와 연계한 '폭스바겐 아테온 가든'을 피크닉 후정에 조성해 운영한다.

폴크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1만 1000여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모인 '레인보우 뮤직&캠핑 페스티벌 2018'에 이어 올해도 메인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했다. 폴크스바겐코리아는 이번 공식 후원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브랜드 경험을 선사했다.

폴크스바겐코리아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제주도에서 '아테온과 함께하는 폭스바겐 로드 투어'를 진행했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지역 고객들에게 특별한 시승 경험과 브랜드 체

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폴크스바겐코리아는 '할로윈: 레드문·서울 패션 페스티벌 2018' 참가를 통해 패션에 관심이 높은 트렌디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할로윈 감성을 '비틀'과 함께 풀어내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도 했다.

또한 폴크스바겐의 플래그십 세단 '아테온'의 출시를 기념해 서울 강남 신사동에 '디아테온'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다.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된 팝업 스토어는 아테온을 표현하는 예술작품과 함께 아테온에 대한 이야기를 각 층별로 담아냈다.

/양성운 기자 ysw@